

【완도 법화사지 사적지정과 활용방안 학술회의】

## 축 사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의 절기에 『완도 법화사지 사적지정과 활용방안을 위한 학술회의』 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완도 법화사의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국가 사적지정과 복원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사)장보고글로벌재단 김덕룡 이사장님과 장보고해양경영사연구회 강봉룡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도군의 법화사지는 1,200년전 해상무역을 화려하게 꽃피웠던 해상왕 장보고 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장보고대사의 얼이 깃들여 있는 사적지입니다.

장보고대사는 완도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로써 우리 완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유일한 공감대입니다.

오늘의 범화사지 사적지정과 활용방안을 위한 학술회의는  
글로벌 무역인으로서의 성공과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했던  
그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완도군의회에서도 완도 범화사지 복원을 위해 군의원님  
들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장보고  
대사가 완도인 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8.

완도군의회 의장 조인호